

GSK·안센 등 빅파마와 맞손… 삼바, 올 누적수주 3조 돌파

증액위탁생산 등 최근 5건 계약
“최대 생산능력 바탕 신뢰 쌓아”
신흥국 인도와 CDMO 경쟁구도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8일 1건의 신규 위탁생산 계약과 4건의 증액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명과 제품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간 누적 수주 금액은 지난 2011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지난 2022년 기록한 계약 금액 1조 7835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특히 총 5건의 계약으로 늘어난 수주 금액은 총 7608억원에 달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공시된 위탁생산 계약 11건 중 증액 계약은 총 7건으로 8805억원 수준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바이오캠퍼스 조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객사로 ▲GSK ▲안센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이릴리 등을 공개했다.

글로벌 빅파마와의 파트너십은 올해도 이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1월 28일 기준 ▲GSK ▲일라이릴리 ▲로슈 ▲화이자 ▲노바티스 등 12건의 증액 계약은 1조 1581억원인 것으로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0년부터 빅파마 고객사를 확보해 성장세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

는 “세계 최대 생산능력, 빠른 생산 속도,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신뢰를 쌓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수요와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생산 능력을 미리 확보해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 능력은 60만 4000리터다. 지난 2020년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4공장을 착공해 올해 6월 전체 가동에 돌입했다.

오는 2025년 4월에는 18만 리터 규모의 5공장이 완공된다.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생산능력은 78만 4000

리터가 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으로는 인도가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분야에서 신흥국으로 떠오르고 있어 CDMO 부문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인도의 다국적제약사 오로빈도의 자회사 큐라테크는 최근 미국 머크와 위탁개발생산을 위한 제한적 의향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계약은 오는 2024년 3월 31일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번 의향서 체결로 오로빈도와 큐라테크의 동물세포 배양을 통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이 구축된다.

인도의 아라젠도 지난 2022년 11월 인도 벵갈루루에 3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단일항체치료제 위탁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도 다국적제약사인 바이오콘의 자회사 신젠은 올해 7월 인도 벵갈루루에 있는 스텔리스 바이오파마를 인수하면서 8600만 달러를 투자해 기존 백신 제조시설을 항체치료제 위탁생산시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LG생활건강 ‘닥터벨머’

어드밴스드 핑크 립세린
인기웹툰과 협업 홍보전

LG생활건강의 더마 화장품 브랜드 닥터벨머가 인기 웹툰을 활용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닥터벨머가 ‘어드밴스드 핑크 립세린’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어드밴스드 핑크 립세린’은 비타민 B12, 비타민 B5, 비타민 E 성분과 히알루론산을 함유하고 있는 입술 관리 제품이다.

무엇보다 LG생활건강은 30일 오후 제품 출시와 함께 웹툰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과 협업한 굿즈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을 통해 선보인다.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은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펜톤에서 연재 중이다. 누적 조회수 4130만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청하 기자

오설록

홈카페 소비자들 공략
얼그레이·블랙티 출시

오설록이 연말을 맞아 홈카페를 즐기는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시그니처 얼그레이’와 ‘스윗 허니 블랙티’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그니처 얼그레이’는 홍차에 천연 베르가못 향과 제주 유자를 더한 제품이다. 오설록에 따르면 일상에서 즐기기에 적합하고, 맛이 강한 음식이나 달콤한 디저트에도 어울리는 것이 특징이다.

‘스윗 허니 블랙티’는 꿀의 풍미가 가득한 홍차다. 설탕 대신 국내산 꿀과 스테비아를 활용했다. 이를 따뜻한 우유에 우려내거나 차가운 우유로도 밀크티를 만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오설록이 선보이는 ‘제주 말차 슈틀렌’은 오설록 말차에 마카다미아, 호두, 크랜베리, 오렌지필, 건포도 등의 원료를 곁들인 디저트다.

/이청하 기자

CJ제일제당

호주 편의점 ‘이지마트’서
비비고 등 ‘K-푸드’ 판매

CJ제일제당이 해외 메인스트림 채널에 잇따라 진출하며 K-푸드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호주 대형 편의점 체인인 ‘이지마트(EzyMart)’에서 비비고, 햇반 등 K-푸드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입점한 제품은 비비고 떡볶이, 김스낵, 햇반, 햇반 컵반 등 14종으로, 이달부터 직영점을 시작으로 호주 전역의 이지마트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까지 판로를 넓히며 더 많은 현지 소비자에게 K-푸드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모다모다의 시니어 모델들이 ‘다시 찾은 에너지’를 주제로 화보를 촬영했다.

/모다모다

‘A세대’ 중장년층 정조준 유통가, 마케팅상품 봇물

호텔업계, 가족·친구 등 교류상품
방탈출·산행&스파 패키지 등 선택

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한달살기 등
여행업계, 패키지 상품 개발 활발

최근 유통 업계는 자기 계발뿐만 아니라 실내외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힐링 등 다양한 분야를 활용해 A세대 소비자에게 주력하고 있다.

A세대에 해당하는 연령은 만45~64세이며 경제적으로 구매력이 있고 시간적 여유도 갖춰 자기 투자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 보면, 호텔업계는 가족 및 친구들을 포함한 전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 분주하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경주 코오롱호텔은 ‘사라진 시계’라는 방탈출 상품을 판매한다. 체크인 시 방탈출 게임에 대해 안내하고 미션 카드 등 게임 도구를 제공한다.

아울러 경주 코오롱호텔은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타임 애프터 타임’ 미디어 아트 전시 입장권 2매도 증정한다.

같은 기간 부산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텔은 ‘편 앤 플레이’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호텔 프런트에서 할리갈리, 우노 등의 보드 게임을 대여해 객실에서 추억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위(WE)호텔 제주는 한라산 산행 후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행&스파’ 패키지를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영실 탐방로 입구까지 운영하는 왕복 셔틀버스를 비롯해 생수 2병과 머핀 또는 브라우니, 꿀, 초콜릿 등을 제공한다. 나아가 카본 스파 테라피와 천연화산암반수 사우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A세대들의 여가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여행 상품도 다양화되고 있다.

마이리얼트립은 중장년층 특화 패키지로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한 달 살기와 예술, 스포츠, 미식, 와인, 공연 등을 다룬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이리얼트립은 ‘토끼와 두꺼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토끼와 두꺼비’는 디지털화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개인 비서 서비스 ‘뽀빠’를 운영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윤종규·이상명·조성환·홍연진 상무 발탁

삼성바이오로직스, 2024 임원인사
나이·연차 상관없이 성과주의 승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탁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차세대 지도자를 발탁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나이와 연차에 상관없이 성과를 창출하고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 및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등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총 4명의 상무 승진이 이뤄졌다. 승진자 가운데 윤종규 상무는 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기획그룹장, 글로벌운영팀장, 제조기획팀장을 차례로 지내며 효율적인 생산 물량 관리를 통해 최대 매출 달성을 주도해 왔다.

윤종규 상무와 같은 1977년생인 이상명 상무는 사업 운영과 기획을 담당하며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 안정성을 높였다. 그는 바이오에피스 PM그룹과 기획그룹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조성환 상무는 지난 2016년부터 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승진자〉



윤종규



이상명



조성환



홍연진

이오로직스에서 공무지원파트, 총무팀장(겸 ESG그룹장), General Affairs팀장 등을 두루 거치며 대외협력 및 인프라 부문에서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인사에서 유일하게 80년대생인 홍연진 상무는 전사 품질 역량 강화 및 품질 시스템 고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여성 임원으로 이름이 올랐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직 개편 및 보직인사 발표도 앞두고 있다.

/이청하 기자

고유상·백상현·양철보 부사장 승진

삼성바이오에피스, 2024 임원인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부사장 3명, 상무 1명 등 총 4명의 승진을 골자로 한 ‘2024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유상 부사장과 백상현 부사장은 삼성전자 출신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에서 각각 전략팀장과 Q&E팀장을 지냈다. 양철보 부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두루 경험을 쌓았다. 이상민 상무는 1975년생으로 현재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 MS1그룹장으로 근무했다. 향후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조직개편을 통해 보직 인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